

최명희문학관, 문학행사 '풍성'

문학주간 맞아 23일 문학놀이터 · '혼불' 활용 제작 영상물 상영 · 전시 · 인문학 특강 등 개최

최명희문학관은 '2023 문학주간'을 맞아 23일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시민·관광객과 함께하는 문학놀이터, '혼불'을 활용해 제작한 영상물 상영과 야외 전시, 이정욱·송정현 교수의 인문학 특강 등이다.

먼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문학관 마당에서 열리는 문학놀이터는 김근혜 동화작가와 재미보따리 정서연 대표가 참가해 '국어사전을 펼쳐라'와 '내 손으로 만드는 문장 고리'를 진행한다. 이는 소설 '혼불'에 나오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며 의미를 알고, 소설 속 좋은 문장을 열쇠고리에 담아 가져야 하는 재미있는 활동이다.

또 세미나실에서는 '혼불' 속 이야기로 새롭게 구성한 창작동화·낭독극 영상을 상영한다.

△가난한 나무꾼이 말하는 개구리를 만나며 벌어진 사건과 교훈을 담은 동화 '나무꾼과 개구리' (작가 장은영), △선달그믐날 밤 사람들의 신발을 몰래 가져가는 귀신 이야기를 그린 동화 '신발 얻은 아광귀' (작가 이정욱), △전주에 후백제 도읍을 세울 결심을 하게 된 견훤대왕의 이야기를 엮은 동화 '백제인 마루' (작가 서성자), △김제시·완주군의 효자 이야기인 '귀신사 홀어미대리와 이서 효자대리', △「혼불」의 춘복이와 웅구네의 정담을 엮은 '어찌 그리 넓은 속을 잘 안당가?', △혼불 속 견훤대왕 이야기 △혼불 속 전주 이야기 등이다.

이어 오후 2시와 4시에는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이정욱 교수와 송정현 HK연구교수가 각각 '서양인 선교사가 기록한 전주'와 '비군정기 전복의 이모저모'를 주제로 전라북

도 사람들의 생활상을 들려준다. 이는 일제강점기인 1936년에 선교사가 촬영한 기록 필름 영상을 통해 전주의 교육·의료·종교를 포함한 전주 서민의 삶을 살펴보고, 미국·호주·일본 등에서 수집한 전문 자료에 기록된 해방 이후 전라북도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다.

한편 각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에게는 전주 문학인들의 신간 도서와 손때 묻은 헌책도 선물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한국문화관광협회·문화체육관광부·전라북도도와 함께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84-0570)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부안군립농악단은 지난 17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31회 임방울국악제에 출전해 농악 부문 총 10개 팀 중 전국 1위인 대상(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부안군립농악단, 임방울국악제 '대상'

농악부문 전국 1위 수상... 부안농악만의 색깔 담아 기량 뽐내

부안군립농악단(단장 이정석 부안군 부군수, 부단장 홍석렬)은 지난 17일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31회 임방울국악제에 출전해 농악부문 총 10개 팀 중 전국 1위인 대상(국회의장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국악계 최고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임방울국악제는 올해 31회째로 국악분야 최고의 등용문으로 유능한 국악예술인 발굴과 한국을 대표하는 민족예술의 전통성을 전수하는 국악대회로 일반부에서는 농악, 판소리, 기악 등을 포함해 총 8개 부문에서 경쟁했다.

농악부문은 전국 각지에서 우수한 실력의 팀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뽐내며 농악 연주 실력을 겨뤘다.

부안군립농악단은 2016년 창단해 부안농악의 역사와 정체성을 토대로 군민의 정서 함양과 전통 농악을 보전 계승하기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

부안군립농악단의 이번 공연은 부안의 풍년과 풍어의 마음을 가득 담은 흥겨운 부안농악 판굿을 비롯해 고깔소고 놀이, 부포 놀이 등 부안농악만의 색깔을 담아낸 다채롭고 흥겨운 공연으로 평가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안숙선 국창, 제3회 아시아 월드뮤직 어워드 수상

국가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 음악 통해 문화교류 기여

남원시는 안숙선 국창이 '제3회 아시아 월드뮤직 어워드' 수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16일 오후 1시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열리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아시아 월드뮤직 어워드는 음악을 통해 문화교류에 기여하는 아시아의 선도적 아티스트들을 격려·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재단법인 월드뮤직센터에서 격년제로 수상자를 선정하며, 역대 수상자를 살펴보면 제1회에는 천재 첼리스트 요요마, 제2회에는 이란의 작곡가이자 연주자인 '후세인 알리자데'가 선정되었다.

국가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춘향가'의 보유자인 안숙선 국창은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판소리계의 독보적인 인물로, 2021년 문화예술 발전유공자로서 정부로부터 은관문화훈장을 받았으며, 이번 안숙선 국창의 수상으로 한국의 판소리가 세계적인 석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수상 소감에서 안숙선 국창은 "우리 소리로 세계인의 마음에 울림을 줄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며,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안숙선 국창이 '제3회 아시아 월드뮤직 어워드' 수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16일 오후 1시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열리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국악계 선배님들과 우리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수상은 판소리의 고장 남원이 배출한 안숙선 국창의 노력과 공

력을 세계적으로 인정 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훌륭한 국창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국악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예술회관, 내년도 상반기 정기대관 접수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9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24년 전라북도예술회관 상반기 정기대관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대관신청서와 전시계획서를 홈페이지(www.jbct.or.kr)에서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정기대관은 2024년 3월 1일부터 6월 27일까지 약 4개월간 매주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1주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예술회관운영팀(063-230-7492)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투자 유치로 관광기업 성장 지원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난 15일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2023 전북 관광스타트업 투자 IR'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제8회 스타트업(Start-up) 전북 창업대전'과 연계해 진행됐다. IR에 참여한 기업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공모한 관광스타트업 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으로, 3개 사가 참가해 5개의 투자자에게 기업별 참신한 콘텐츠와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했다.

참가기업은 '올인원 비즈니스 트립 플랫폼'의 인사이드투어, '인플루언서 여행 중개 플랫폼'의 (주)피치, '리워드 관광 데이터 플랫폼'의 (주)블루프로그다.

센터는 이번 IR을 위해 기업 맞춤형 1:1멘토링 및 발표자료 고도화 등을 지원했으며, IR 이후 투자사들과의 밀착 상담을 통해 투자유치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주)블루프로그는 벤처투자사인 더인벤션랩과 2억원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한



국시장 뿐만 아니라 투자사(더인벤션랩)가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핵심국가에 자사의 데이터 플랫폼 서비스를 이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후속 투자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063-230-4214)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인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